

디지털 자서전 연구를 위한 고려사항

-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노년을 대상으로

(Considerations on Digital Autobiography of the Elderly in the Digital Age)

주선이*, 김한일**

(Seoni Joo, Hanil Kim)

요약

노년세대는 발달과제인 '자아통합감'을 이루기 위해 기억, 평가, 종합의 역동적인 과정인 '인생회고'가 필요하다. 자서전 쓰기는 사고양상으로서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인생회고의 도구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는 뉴실버세대에게 디지털 자서전이 자아통합감을 이루는 도구로서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생회고로 자아통합감을 이뤄가는 과정에 관한 이론들을 먼저 살펴보고, 자서전 쓰기의 양상 및 내러티브의 3가지 개념과 자서전적 글쓰기의 구성 요소를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서전의 특징을 살펴보고, 뉴실버세대의 디지털 자서전 연구를 위한 고려 사항을 제안한다.

■ 중심어 : 자서전 ; 인생회고 ; 디지털 내러티브 ; 자아통합감 ; 뉴실버세대

Abstract

Older generations may want a life review, a dynamic process of recall, evaluation, and aggregation, to fulfill their developmental task of "ego-integrity." Writing an autobiography is a tool for a life review based on narrative as "mode of consciousness."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what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digital autobiography can fulfill its original role as a tool to achieve ego-integrity for the New Silver Generation. For this purpose, we will first examine theories about the process of ego-integrity through a life review. Then we will analyze different aspects of writing an autobiography including three characteristics of being narrative and the compositional qualities of autobiographical writing. Next, we will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narrative autobiography, and highlight some ideas to consider in the study of digital autobiographies for the New Silver Generation.

■ keywords : autobiography ; life review ; digital narrative ; ego-integrity ; new silver generation

I. 서론

유엔(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4%, 2026년이면 20%의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중인 국가중 하나이며, 특히 21세기의 노인세대를 '뉴실버세대(New Silver Generation)'라 부른다. 1945년 이후에 태어난 뉴실버세대는 이전의 실버세대와 달리 소일거리로 여생을 보내는 대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하고 일생동안 사회에서 쌓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다시 사회에 돌려주려고 노력하며 스포츠, 여행 등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뉴실버세대는 디지털 향유방식과 미디어 욕구에 있어서 기존의 세대와 크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표현 기술의 발전,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뉴실버세대에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가진 상호작용성이 이야기하기 (storytelling)에 수용되면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벗어나 상호작용성을 지닌 다양한 디지털 내러티브 방식을 이용한 글쓰기가 가능하다[2].

에릭슨(Erikson, 1979)에 따르면 노년기의 심리학적 대립은 '통합감 대 절망감'이다. 노년기에는 자아통합감을 발달시키고 성취해야 은퇴 후 맞게 되는 절망감에서 벗어나 인생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3]. '자아

* 준회원,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 정회원,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이 논문은 2018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9년 05월 30일

수정일자 : 1차 2019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7월 30일

교신저자 : 김한일, e-mail : hikim@cheju.ac.kr

통합'이란 과거 경험을 재음미, 검토하여 살아온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평가하고 수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정돈하고 싶은 내적 욕구를 의미한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회상과 인생회고를 도와주는 자서전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서전을 쓰기 위해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며, 인생 전체를 회상해야한 것과 글쓰기 작업을 동반해야 한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정보기술의 발달 이후 사이버 공간은 종래의 활자언어의 독점적 지배에서 벗어나 청각적 매체와 시각적 매체 모두를 융합시키고 통합해 왔다. 특히 영상 시대에 주목받기 시작한 구어는 생동감, 상황적응성, 주관적 표현이 지닌 친근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4]. 최근 들어 뉴실버세대는 문자 시대에 억눌렸던 다양한 자기표현의 욕구 충족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자서전으로 기존의 자서전을 대체하고자 하는 활발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자서전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디지털 자서전이 자아통합감을 이루는 도구로서 충분한지 탐색해보고, 미흡하다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디지털 자서전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사고하며 기록한 인생 전반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자서전 연구는 심리학, 문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등이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첫째, 자아통합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 볼 것이다. 둘째, 최근의 자서전 쓰기의 양상 및 내러티브의 개념과 자서전 글쓰기를 이루는 구성자질을 고찰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내러티브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서전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아통합감을 위한 도구로서, 소통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지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뉴실버세대의 디지털 자서전으로 연구를 위한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뉴실버세대의 특징과 인생회고

한국에서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 1,300만명이 2020년 이후부터 65세 이상인 실버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뉴실버세대(New Silver generation)로 불리는 이들은 한국에 해외 대중문화가 유입되고 한국 영화와 대중음악이 전성기를 맞았던 1960-1970년대에 유/청년기를 보내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였으며, 대중매체에 익숙하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비활동이 활발했

다. 이 세대의 특징을 '건강, 가족, 여가, 사회참여, 디지털라이프'라고 기술하기도 한다[5]. 뉴실버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디지털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독특한 디지털 향유 방식의 미디어 욕구를 보인다[6]. 예를 들어 이전 세대와는 달리 사회 참여, 여가 활용, 자아 표현의 도구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7, 8]. 그러나 뉴실버세대들에게도 이전 세대와 동일한 노년기의 이뤄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

Erikson(1979)의 '심리사회발달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를 거쳐 발달한다.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아통합과 절망감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 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있는 그대로 후회 없이 받아들이며, 인생의 피할 수 없는 종말로 죽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통합감이라는 정점에 다다른다. 반면, 살아온 삶이 무의미하다고 후회하면 이제는 다른 삶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느낌에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3].

Butler(1963)에 따르면 인간이 과거 경험의 의식, 특히 미해결된 갈등으로 점진적으로 회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정신과정으로 인생회고를 정의하였다. 특히 인간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죽음과 자신의 붕괴라는 불가피한 현상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지나온 일생을 회고하여 성격을 재조직(personality reorganization), 재통합(reintegration)하려는 행동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앞선 경험과 의미에 대해 재인식, 이를 다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확장한다. 노년기 회상은 이러한 자아통합감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수단이 된다[9].

Webster와 Young(1988)도 회상(reminiscence)과 인생회고(life review)를 자아통합을 이루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보았다. 인생회고는 노년세대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가능한 활동으로, 단계에 특정화된 과업(task)이라기보다는 발달과정(developmental process)으로 본다. 노년의 회상이 가진 기능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1) 위안(soilice)과 사회적 교환(social exchange)의 자원이 되며, 2) 안정적이고, 독창적이며 영구적인 자아상을 유지에 필요하고, 3) 과거의 개인적 갈등을 해결하는 발달과제(developmental task)로서의 기능이다. 인생회고는 과거 경험을 능동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임박한 자신의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의 반응이기도 하다. 인생회고는 과거를 재구성하고 평가하며, 특정 단계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과정을 다루며,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갈등을 포함하고,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마음 속 맥락(intrapersonal context)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Webster와 Young의 인생회고를 발달적 구조

(developmental framework)로 본 관점은 Erikson이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누고 심리사회적 위기와 발달 과업을 함께 제시한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아평가(self-assessment/evaluation)은 비형식적이며, 빈번한 내면과의 대화의 결과이다. 따라서 인생회고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정신생리학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이 포함된 역동적인 과정(dynamic process)인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의식으로 불러내는 심리과정인 인생회고는 기억(recall), 평가(evaluation), 종합(synthesis)의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생회고는 '기억'의 요소와 함께 시작되며 이 과정은 의식적, 의지적인 행위이며, '평가'는 구성주의와 발전적인 과정을 둘 다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의 현 상황 안에서 일생동안 계속하여 변화가는 발달적인 것이다. '종합'에서는 평가의 과정을 거친 기억은 더욱 정교해지고 재통합된다. 즉, 기억되고 평가된 과거는 과거와 현재의 자아를 새로운 구조와 수용으로 이끌어낸다[10].

실제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 사례도 있다. 그 결과 자아통합감을 얻은 주요 방법으로 인생회고 기법을 도입한 집단 참여프로그램은 과거에 대한 회상 경험을 통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돕는 데 높은 효과가 있고[11], 삶의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이 안녕감의 주요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2]. 또한, 회상 기법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초고령사회의 중심 계층으로 등장한 뉴실버세대 또한 노년기의 자아통합을 위해서는 인생 전체의 주기를 회고하는 기억, 평가, 종합하는 회고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사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 인생을 회고하는 과정이 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한된 자신의 기억 능력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일기 쓰기"나 "메모하기"를 이용한 글쓰기 방식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뉴실버세대에게는 오히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나 소셜네트워크에 기록되고 저장된 디지털 기록인 라이프로그(lifelog)가 정확한 기억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SNS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일상 전체를 기록하는 행위 즉, 라이프(life·삶)와 로깅(logging·일지, 기록)의 합성어인 라이프로그(lifelogging)은 개인의 일상 정보를 장치를 통해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14, 15].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인 기억의 수집만으로 인생회고는 시작될 수 없다. 어떤 기억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주

체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평가와 종합이 이어지는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사고과정으로 연결될 때 자아통합감을 이루는 진정한 인생회고를 경험할 수 있다.

2. 자서전 쓰기 양상과 내러티브

자서전(自敘傳, Autobiography)이란 자신의 삶에 관해 기록한 것 즉, 자신의 생애에 대해 스스로 쓴 전기이다. 이는 화자가 이야기하는 상황을 넘어서 인생 전반에 걸쳐 화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 또는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직접 체험한 것에 관한 생애사 이야기(life story)를 의미한다.

노년세대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의 필요와 노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생회고의 욕구는 노년 교육 방법의 하나로 이어져 자서전 쓰기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활용되었다. 자서전 쓰기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센터, 시민학교, 도서관, 이야기하기 카페 등과 같은 곳에서 주로 이뤄지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모아 출간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사진이나 그림, 영화로 쓰는 자서전, 모바일을 통한 자서전 쓰기 캠페인, 집단 자서전 쓰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이용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 일본 등에서 오래전부터 자서전 쓰기가 유행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자서전 쓰기도 이뤄지고 있는 게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센터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창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의 홈페이지(www.storycenter.org)에 올려진 창작물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과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짧은 비디오 형태로, 웹을 통해 출판되는 자서전이다. 2011년부터 옥스포드대 울프슨 컬리지에서는 Oxford Centre for Life-Writing Center(www.wolfson.ox.ac.uk/oclw)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생애사 글쓰기와 자서전과 관련된 연구 및 자서전을 출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자서전 쓰기 사례 연구와 교육적 의의 및 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들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행중(2011)은 자서전 쓰기를 통한 생애사(Biography)적 재구성 과 노년기 삶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았다. 생애사는 삶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삶의 이야기이다. 삶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노년 세대는 자신의 전생애 발달 과정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생애사적 역량을 개발하여 노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적 체험을 경험하여 자아통합에 이를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16]. 정승일(2012)은 노인들이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서 회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으로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 자서전 쓰기가 자아통합에 이를 수 있음을 이끄는 도구가 된다고 했다[17]. 임순철

(2015)은 자서전이 상호작용 결핍을 겪는 노년의 인정을 받기 위한 욕구의 표현방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자서전은 형상화의 산물로 기억 속 시간을 재형상화하는 것이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균열된 정체성을 가진 노년세대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과거의 자기를 현재화하여 정체성을 회복하였다. 회복된 정체성은 외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노년세대는 자신이 다시 인정받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이 자신의 죽음이후에도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자서전 속에 남아 기억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드러냈다[18].

노인들이 자서전 쓰기 과정에서 생애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타자를 관련짓고, 자신의 경험을 조직화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박성희(2016)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노인이 자신의 고유한 상황과 맥락에 의해 구성된 삶을 성찰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내러티브성(narrativity)을 설명한다.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내러티브 과정 속에서 자기성장, 자기교육 같은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노년기 살아가는 지식으로 재구성되어 노년기를 살아가는 생산적 지식을 만들어 성공적 노화를 이끌어 주는 '생애사적 역량'이 된다[19].

자서전 쓰기의 이야기 방식은 내러티브(narrative)의 개념에 대한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내러티브는 문맥에 따라 서사체, 이야기, 이야기하기, 담화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나 최근 몇 년 동안 내러티브 용어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쓰이면서 이에 대한 정의와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도 원어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도록 용어 그대로 사용코자 한다.

Bruner(1986)가 인간사고 양식의 하나로 내러티브 사고(narrative)를 소개한 뒤, 최근 들어 내러티브는 인간이 경험을 조직화하고 이해하며 지식을 구성하는 주요 사고 양식이자, 지식과 실제, 의식,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20]. Rankin(2002)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이야기 혹은 결과물(story or product)로서, 사고양상(mode of consciousness) 및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로 어우러진 활동이라 규정하였다[21]. 즉, 내러티브란 내러티브 사고양상을 통하여 이야기가 구성되며 내러티브 사고양상으로 수반된 이야기를 매개로 저자, 이야기, 청중 사이의 대화적 상호작용(커뮤니케이션)의 3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22].

사고양상으로서의 내러티브 개념은 내러티브를 매개로 세상에 대한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조직화하는 과정이 '기억, 평가, 종합'의 인생회고 사고과정을 거쳐 자아통합감을 이루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생사 글쓰기 과정에서 형성되는 서술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은 개인의 내면화되고 진화하는 삶의 이야기로 재구성된 과거와 상상하는 미래를 통합하여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의 unity와 purpose를 제공한다. 이는 정신적인 건강과 웰빙, 성숙(maturity)을 제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향유케 하는 경향이 있다[23].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내러티브 개념으로 자서전 쓰기가 상호작용의 욕구를 가진 노년의 욕구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룹 자서전 쓰기 활동의 연구 결과는 그룹 내의 상호작용과 자신 내면의 상호작용인 자아성찰,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보여준다[24].

자서전 쓰기의 첫 단계는 인생회고의 '기억'으로 시작된다. 주제를 정하고, 연대표를 만들고, 글쓰기 자료를 모으기 위해 회상, 일기나 사진, 메모와 기록, 편지와 카드, 주변의 증언을 이용하게 된다. 박용익(2006)의 자전적 이야기가 가진 구성적 자질을 살펴보면 자서전 쓰기와 인생회고의 '평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에 이해할 수 있다. 자전적 이야기는 본래 체험했던 사건과는 근본적인 거리가 존재하는 기대와 경험, 욕구를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모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사건이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 사건이 화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든 동기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전적 이야기의 플롯 구성을 통해 서로 관련 없는 사건의 연쇄들이 의미 있고 결속성을 갖는 이야기의 줄거리로 구성된다. 그 결과, 자전적 이야기는 이야기의 묘사를 넘어서 평가적인 요소 또는 감정이나 욕구, 동기 등을 전달하는 '다중 가치'를 갖게 되고, 경험을 이야기할 때, 체험하던 순간과는 다른 인식의 관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25].

이로써 자서전 쓰기가 노년기의 과업인 자아통합을 이루는데 최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자서전 쓰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글쓰기의 어려움이다. 글쓰기가 쉽지 않아 여전히 대필을 하거나 대필에 대한 수요가 많다. 다음으로 자서전 쓰기에서 인생 전체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 플롯 구성으로 만드는 것은 수집과 정리, 집필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글쓰기 전략과 단계의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26].

최근 들어 자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학장르로 확립되면서 형식을 제한하는 접근 방식을 탈피하였다. 형식과 내용이 일정한 범위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지면서 자서전의 서술 목적이 개인의 체험을 통한 삶의 해석이 된다면, 시간적 연대기에서 과거에 놓인 사건들이 선별되고 구성되는 방식 자체도 새로운 연구의 대상이 된다[27]. 이처럼 자서전 쓰기의 형식이 다양해지고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뉴실버세대의 자서전 쓰기는 자연스럽게 디지털 내러티브 기반의 디지털 자서전 쓰기로 변환, 전환되고 있다.

3. 디지털 내러티브와 디지털 자서전

내러티브의 개념을 결과물이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고양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하나 또는 함께 어우러진 활동으로 규정한 것처럼, 본고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거나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내러티브를 '디지털 내러티브'라 정의한다.

디지털 매체가 가진 상호작용성을 디지털 내러티브가 가진 본질로 볼 수 있다. 이는 원래 내러티브가 가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개념을 확장하며 더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저자와 독자는 상호대면성과 쌍방향성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 디지털 내러티브가 새로운 서사적 공간을 형성하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내러티브의 사용자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이야기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사용자간의 공감각이 이뤄지면, 소통은 더욱 활발해져 언제든지 독자는 네티즌으로서 저자에게 댓글을 통해 탐색적 연구와 질문을 던지거나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한다. 이는 공감각이나 이의를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하고 쌍방향의 관계를 갖게 한다[28].

디지털 내러티브를 내러티브와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내러티브는 이야기 구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다. 기존의 내러티브가 중심적 저자, 선형성, 종결 등을 지향하는 것에 비해 디지털 내러티브는 탈중심화, 네트워크, 연결, 미시서사를 기본 특성으로 한다[29]. 둘째, 내러티브가 문자적인 서술 방식인 것에 비해 디지털 내러티브는 구어적인 서술 방식을 되살려 놓았다. 구술이 문자로 정착되어서 구어 시대에는 존재했을 말하는 사람의 분위기, 기분, 신분, 표정 등에 대한 표현은 배제됐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공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상과 말과 음악을 아우르는 콘텐츠들이 무수히 등장하고 있다. 일종의 ‘신 구어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다양한 종류의 음성 녹음 장치를 사용하면서 개인의 표현, 참여, 소통, 연결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셋째, 디지털 내러티브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개인적 이야기를 사진과 동영상, 음악, 목소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나타낼 수 있어서 자기표현의 영역을 확대시켜 준다. 문자로 서술될 때 배제됐던 부분들을 다시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모바일로 찍은 사진과 SNS에서 주고 받은 데이터, 디지털 저장소에 남겨진 위치와 시간 정보, 영상 및 음성 기록 등은 디지털 자서전을 이루는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와주는 실제적인 자료가 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보화시대의 디지털 내러티브는 ‘라이프로그(lifelogging)’, ‘디지털 인생 이야기(digital life story)’라는 새로운 용어와 장르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누구든 인터넷에 연결된 디지털 매체에 접속하면 전기(biography)가 자동적(auto/biography)으로 만들어지고(create), 게시(publish)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기도 하다[30]. 페이스북(Facebook)에서 담벼락에 올려진 게시물을 모아서 월별로, 연도별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타임라인(Timeline)서비스도 Auto/biography의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31].

마지막으로 디지털 내러티브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디지털 내러티브가 가진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독자는 수용자에 그치지 않고 제공자가 되어 그 내용 자체를 조작, 변경할 수 있

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내러티브는 단순히 디지털 정보로 변환된 이야기물이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소설이나 인터랙티브 영화와 같이 독자가 내용 자체를 조작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이야기물을 포함하게 된다[2]. 즉, 저자가 만든 디지털 내러티브의 텍스트를 독자들이 자유롭게 옮기고, 배치(configuration), 쓰기(writing), 덧붙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유튜브와 같은 공유 플랫폼에 저자도 모르게 내용이 무단 사용되거나 삭제 또는 복제되는 경우가 있다. 즉, 디지털 내러티브의 사용과 수정의 용이함이 오히려 취약점(vulnerability)이 될 수도 있다[32].

디지털 자서전이 실제 적용,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를 통해 디지털 자서전 글쓰기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9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의 조직을 갖추게 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센터(www.storycenter.org)의 자서전적 창작물은 개인의 삶을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창작가의 목소리 등을 통합해서 공감적으로 표현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구성해서 짧은 비디오 형태로 만든 웹을 통해 출판하는 자서전의 형태로, 웹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등의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억을 바탕으로 재료를 수집하고 편집 및 평가로 일정한 구조(플롯)를 갖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의 엄격함이 가지기 위해 분량을 250단어, 12장의 사진, 2분 길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디지털 자서전의 서술적 자아(narrative identity)에 대한 평가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체성과 관련지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페이스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자신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각자의 일상생활, 나아가 믿음, 가치관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인다[33]. 이런 배경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기과시적 표현을 함에 있어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게 된다[34, 35]. 이렇게 형성된 서사는 엄밀히 말해 자서전이라 볼 수 없다.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의 정리가 아니라 서술적 자아가 직접 그것에 함축된 정신적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과거의 고백과 반성, 재해석을 통한 상실되고 무너진 과거를 복구하여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간은 스스로의 삶에 고차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자서전의 글쓰기는 기존의 글쓰기와 비교할 때 환경적인 변화로 자료적인 측면에서 정보들을 모뎀화하고, 접근성과 편집의 용이성을 향상하였다. 즉, 글쓰기의 관행이 선형적인 글쓰기에서 자료들을 재조합하는 구조화 글쓰기로 바뀐 것이다[36]. 그러할지라도 인생 전체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로 쓰는 글쓰기 전략은 디지털 자서전 글쓰기에도 적용하여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본요소를 충족시키는 디지털 자서전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틈’을 의식하는 평범한 개인이 스스로 정체성을 구성하고 다양한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III. 디지털 자서전 연구를 위한 고려사항

디지털 내러티브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 때 자유로운 자아표현이 가능하다. 디지털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성과 쌍방향성은 노년세대와 다른 세대를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가 되어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자서전은 디지털 시대의 노년세대가 자신들의 과업과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적절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자서전의 목적은 자신의 인생회고이며, 인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인생회고를 하려면 삶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첫 시작인 기억의 단계에서 디지털 자서전은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기억해내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자서전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 단계에서 디지털화된 사진, 문서, 블로그, SNS를 통해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디지털로 저장된 자료를 수집, 선택, 배치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기억을 소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상과 회고의 과정이 시작된다. 따라서 차후 전인생을 시간순서로 수집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및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디지털 자서전 쓰기 전략 및 수집-평가-종합의 단계별 작성 교육 방법도 앞으로 디지털 자서전 연구에 필요한 과제이다.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마이닝 또는 빅 데이터 등의 이슈가 한창인 컴퓨터 공학 관점에서는 수집-평가-종합의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도도 가능하다. 하지만 디지털 자동화의 범위가 인생회고의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자서전은 자신의 인생 소재의 플롯이 있는 이야기(내러티브)로 볼 수 있다. 인생회고를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 전반을 평가, 종합하는 사고 과정이 꼭 필요한데, 저자가 자서전의 줄거리를 다듬는 과정에서 플롯을 구성하며 기억 속 시간과 사건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 때 서로 관련 없는 사건들이 새로운 의미와 결속성을 갖게 된다.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했던 경험과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했는지, 그때 가졌던 정서적 경험과 감정적 평가이나 욕구, 동기 등을 발견하고 전해 주게 된다. 그 결과 체험했던 순간과는 다른 각도에서 자신의 지나는 인생과 주변 관계를 보면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자서전을 기획하는 과정은 인생 전체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로 만들어 가는 글쓰기 전략과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차후 자전적 이야기의 글쓰기 기법을 디지털 자서전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자서전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다. 사진, 음악, 비디오 영상, 텍스트, 음성 등 자신이 원하는 표현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자서전을 쓰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 능동적으로 디지털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디지털 자서전은 기존의 텍스트 형식의 자서전에서는 불가능했던 공감각을 이용한 제작 방식과 함께 그 표현의 영역, 범위, 그리고 가능성의 폭을 한층 넓혀 준다. 다양한 디지털 표현 방법으로 개발된 디지털 자서전의 모델 개발은 계속 연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자서전은 다양한 의사소통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내러티브의 본질인 상호작용의 특성을 디지털 자서전도 갖게 된다. 즉, 저자와 독자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공감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자서전은 노년세대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의 기록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서전이 가진 후대에게 자기 경험을 전달을 전달하는 목적에도 부합된다. 그 결과, 노년세대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디지털 자서전이 각 세대 간의 문제점과 시대의 고민과 삶의 지혜를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개발도 차후의 연구과제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37].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자서전의 저작권 침해와 보호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변경과 수정이 용이하고 삭제나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인 동시에 자서전으로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기도 하다. 디지털 매체로 제작된 자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매체이다. 의도와 다르게 본인이 쓴 자서전이 독자나 타인에 의해 조작, 변경되지 않도록 콘텐츠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자서전은 고스란히 자신의 전 인생이 담긴 부분이자 개인의 지적 재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훼손과 삭제, 변경 등은 저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 공개의 범위 또는 비공개의 여부 또한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8]. 앞으로 디지털 자서전 저작권 보호에 대한 부분과 안정성에 대한 대안들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디지털자서전에 대한 연구 및 대중적 실용화를 위해서는 공학, 인문학, 심리학 등의 여러 학문이 서로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디지털 자서전이 뉴실버세대의 노년기 과제를 해결할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존에는 자아통합을 이루기 위해 인생회고를 활용한 자서

전이 이용되었으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인생회고는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글을 써야하는 기존의 자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들의 디지털 향유방식과 미디어 욕구에도 부합된다. 또한 디지털 자서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타인(독자나 청자)과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뉴실버세대가 가진 자기표현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자서전을 구성할 때 필요한 고려 사항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디지털 자서전의 목적은 자신의 인생회고이며, 인생 전체의 주기를 순차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자서전은 자신의 인생을 소재로 플롯구성이 있는 이야기의 줄거리로 볼 수 있다. 플롯을 구성하며 기억 속 시간과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생 전반을 평가, 종합해 보도록 도와줄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자서전은 공감각을 이용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자아를 표현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자서전은 디지털 내러티브가 가진 상호작용성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목적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서전의 저작권 침해와 이를 보호할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변경의 용이함과 삭제나 재생산의 가능성은 장점인 동시에 디지털 자서전으로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기도 하다.

디지털 자서전이 시대에 맞는 역할과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차후 구체적인 연구와 개발이 계속 되어야 한다. 우선,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수집, 편집, 저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구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진 노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1) 디지털 내러티브를 이용한 자서전 쓰기 교육과 2)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서전을 만드는 단계별 교육 3) 기억-평가-종합하는 사고훈련을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로, 디지털 자서전을 통해 각 세대 간의 문제점, 시대의 고민과 삶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간의 소통을 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도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서전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과제로 남아 있다.

REFERENCES

[1] United Nations New York, "World Population Ageing [Highlight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7.

[2] 전경란, "디지털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상호작용성과 서사성의 충돌과 타협",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3] Erikson, E.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9.

[4]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스마트 시대의 글쓰기," *기획회의*, 제337호, 2013년 2월

[5] 삼성경제연구소, "실버세대를 위한 젊은 비즈니스가 뜬다," *CEO Information*, 제869호, 2012년 10월

[6] 허원희, "뉴실버세대의 디지털미디어 수용과정에서 감성적 가치 요인이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7

[7] 강성관, 반수경, 차준섭, "뉴실버 세대를 위한 융합형 스마트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연구," *(사)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13-26쪽, 2013년 11월

[8] 김문정, "뉴 실버세대를 위한 사진교육 연구-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노년기 자아통합감을 중심으로," *한국사진학회*, 제37권, 45-48쪽, 2016년 8월

[9] Butler, R.,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vol. 26, no. 1, pp. 65-76, 1963.

[10] Webster, J.D. and Young, R.A., "Process Variables of the Life Review: Counseling Implic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26, no. 4, pp. 315 - 323, 1988.

[11] 이가옥, 이현송, "노년기 자아통합 집단 프로그램 개발: '나의 살아온 이야기'," *한국노년학*, 제24권, 제1호, 37-52쪽, 2004년

[12] 유성경, 김유진, "삶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 및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6권, 제2호, 53-75쪽, 2015년

[13] 이현림, 배강대, "회상기법 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제5권 2호, 409-421쪽, 2004년

[14] A. Sellen and S. Whittaker, "Beyond Total Capture: A Constructive Critique of Lifelogging", *Communication of the ACM*, vol. 3, pp. 70-77, May 2010.

[15] 라이프로그(2015). *블록체인 AI 뉴스*, <http://blockchainai.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8&nMcate=M1001&nIdx=29642&cpage=22&nType=1> (accessed July 18, 2019).

[16] 지행중, "자서전에 나타난 노인의 생애사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7] 정승일, "노년기 그룹 자서전 쓰기 활동 참여자의 배움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8] 임순철, "노년세대 미디어로서의 자서전에 대한 연구: 자서전 쓰기를 통한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9] 박성희, "노인 자서전쓰기에 나타난 생애사 학습의 의의," *질적탐구*, 제2권, 제1호, 181-204쪽, 2016년

[20] J.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The Jerusalem-Harvard Lectures World*, pp. 11-14, 1987.

[21] J.R. Rankin, "What is Narrative? Ricoeur, Bakhtin, and process approaches," *Concrescence: The Australasian Journal of Process Thought*, vol. 3, pp. 1 - 12. 2002.

[22] 박민정,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 교육연구*, 제7권, 제4호, pp. 27-47, 2006년

[23] D.P. McAdams and K.C. McLean, "Narrative Ident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2, pp. 233-238, 2013.

[24] 한정란, 조혜경, 이이정, "노인 자서전 쓰기," *학지사*, 99-117쪽, 2004년

[25] 박용익, "이야기란 무엇인가?," *텍스트 언어학*, 제24호, 143-163쪽, 2006년

[26] 이동성, 김영천,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에서의 일곱 가지 글쓰기 전략," *초등교육연구*, 제27권, 제4호, 77-103쪽, 2014년

[27] 최경도, "자서전 연구의 성격과 전망," *영미문학교육*, 제12집, 제1호, 129-145쪽, 2008년

[28] 김영진, "디지털 내러티브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1권, 제4호, 89 -111쪽, 2014년 11월

[29] 원철, "차이와 생성으로서의 디지털 서사: 공감각적 내재성," *인문연구*, 제69호, 2013년

[30] M. Hardey, "Digital Life Stories: Auto/Biography in the Information Age," *Auto/Biography*, vol. 2, no. 3, pp. 183-200, September 2004.

[31] How Facebook Timeline Works(2012), <https://computer.howstuffworks.com/internet/social-networking/information/facebook-timeline.htm> HowStuffWorks.com (accessed July, 20, 2019).

[32] Ü. Kennedy, "The Vulnerability of Contemporary Digital Autobiography," *IABA Graduate Student and New Scholars Network: What's Next?*, pp. 409-411, Apr. 2017.

[33] 이규호, "페이스북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시론,"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제4호, 129-172쪽, 2011년

[34] 김유정,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4호, 503-512쪽, 2015년 8월

[35] How Facebook Can Amplify Low Self-Esteem, Narcissism And Anxiety(2014),

<https://raywilliams.ca/how-facebook-can-amplify-low-self-esteem-narcissism-and-anxiety> (accessed July, 20, 2019).

[36] 김주환, "제조합의 글쓰기에서 구조적인 글쓰기: 글쓰기 인지절차의 계획단계를 보조하여 탄탄한 구조를 만드는 글쓰기 방법과 도구의 제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2

[37] 정다미, 이충권,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미디어저널*, 제4권, 제1호, 44-51쪽, 2015년 3월

[38] 김진수, 최방호, 조기환, "업 영역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스마트미디어저널*, 제8권, 제1호, 09-18쪽, 2019년

저 자 소 개



주 선 이(준회원)

1994년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사 졸업.
2019년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석사과정.

<주관심분야 : 이러닝, ICT, 게이피케이션, 스토리텔링>



김 한 일(정회원)

199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공학박사)
1995년~현재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2009년~현재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주관심분야 : 컴퓨터교육, 문화기술, 스토리텔링>